

'96 MMA물량 입찰을 보며 '97 후반기를 예측한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역사를 보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비관적으로 보는 세력이 있다. 매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취도가 높은 반면 실패도 많게 마련이다. 임진왜란이나 한일합방이나 6.25때도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아오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서양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매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치는 선지자 그룹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마저 바빌로니아에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간 후에야 선지자 그룹의 주장이 옳았던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축산업계에도 두 가지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른 그룹이 있다. 양계, 양돈 등은 완전 개방되어도 국제경쟁력이 있으며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는 그룹과,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의 산업으로 존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그룹이 있다.

양 쪽이 모두 상당한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이전에 낙관적으로 보면 우선 즐겁지만 여기에는 끊임없는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불을 넘었는데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역규모가 1,000억불을 넘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는 낙관론자도 있다. 농축산물의 급격한 수입확대도 무역수지 적자의 한 요인이지만 식량의 자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들어 쌀의 자급 문제가 갑자기 강조되면서 이미 사업 승인이 다 된 농지까지 시설 허가가 안 나오는 등 좀더 장기적인 정책수행으로 농민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지난 2월 6일 축산물유통사업단은 금년도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MMA 물량 수입 공매권 입찰을 했다. 닭고기 10,100톤, 돼지고기 22,942톤이 공매되었는데,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 다시 말해서 돼지고기나 닭고기의 경우 수입하면 장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6

이제 낙관도, 비관도
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 MMA 물량 및
수급조절용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경험을 쌓았으므로
국내 돈가를 얼마에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대답은 분명해졌다.
생산농가들이 무조건 높은 가격만을 고집할 수도 없게 되었고,
정부도 국제 경쟁력만을 고집해서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정확한 생산비와 적절한
이윤을 산출하고 과연 이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가격인가를 검토한 후 국내가격을 안정,
유지할 필요가 있다.

99

이번 낙찰된 거평유통(4,000톤), 롯데햄(3,000톤), 해태(2,420톤), 현대(3,000톤), 효성(621톤), 쌍용, 제일제당, 미원, 대한제당, 진주햄 등 국내 재벌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앞으로 유통을 장악한 재벌기업들이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매 납입금이 312원을 형성함에 따라 97년 7월 1일 수입개방이 되면 현재 25%의 관세에서(MMA) 34%가 되어도 상당한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난 10월 이후 약 17%의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었고, 우리 나라도 금년중으로 양축 농가에 부담이 되는 폭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생산비에서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낙관도, 비관도 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 MMA 물량 및 수급조절용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경험을 쌓았으므로 국내 돈가를 얼마에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대답은 분명해졌다.

생산농가들이 무조건 높은 가격만을 고집할 수도 없게 되었고, 정부도 국제 경쟁력만을 고집해서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정확한 생산비와 적절한 이윤을 산출하고 과연 이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가격인가를 검토한 후 국내가격을 안정,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돼지가격의 계절별, 연도별 진폭이 커서 생산비의 폭도 매우 큰 것이 우리의 약점이었는데, 수입물량의 증가에 따라 가격의 안정은 손쉽게 되었으나 민간 수입상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물량의 증가는 국내 생산 포기여 이어지고, 생산 감소는 가격 상승을, 가격 상승은 수입량 증가라는 몇 번의 악순환을 거쳐 산업이 피폐화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가격 정책이 다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재경원 물가당국의 지난해 연말 대비 몇% 상승이라는 탁상행정에서의 물가정책에서 자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